

독특한 포장 노하우 따라잡기

세련된 포장 돋보이는 특별한 베이커리

베이커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제품만큼이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포장이다. 제품이 좋다고 무조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좋아 보여야 고객의 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포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성을 살린 포장기법으로 주목받는 베이커리 4개 매장의 인기 비결을 알아본다.

글_박소희, 정솔이 기자·사진_전문식, 주현진



베이커리의 브랜드와 제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포장은 매출과 바로 직결된다. 제품이 좋아 보여야 고객이 호감을 갖게 되고 제품이 좋으면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포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심을 갖는 매장이 부쩍 늘었다. 포장 전문가를 초빙해 판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는가 하면 특수절에 알맞는 포장에 주안점을 두고 제품 구성을 하는 곳도 눈에 띈다.

베이커리 제품 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장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날개 포장에서 대형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베이커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미 대형 제과점은 별도로 제작한

고유 포장 재료를 이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제과점에서는 경제적인 비용 지불의 부담과 함께 전체 수요가 한정돼 있는 관계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궁여지책 끝에 기성제품으로 나와 있는 소재를 이용해 눈에 띄고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는 곳이 많다. 기성제품 소재를 점포 이미지에 맞게 주문제작하고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특수절 별로 새롭게 디자인한 포장만으로도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오너의 정성을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는 포장에 각별히 신경써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는 베이커리 4개 매장의 숨은 인기 비결을 알아본다. ☺

포장으로 부가가치 업그레이드 블랑제리 드 르방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블랑제리 드 르방 매장(대표 정찬웅)은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각종 빵, 케이크, 구움과자, 샌드위치가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매대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포장코너.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한 각종 쿠키, 바구니에 담긴 파운드 케이크와 갖가지 구움과자, 고급스러운 리본을 두른 초콜릿 선물박스, 투명한 비닐에 포장해 먹고 싶은 식욕을 자극하는 샌드위치 등 품목별로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매장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주희 씨는 선물포장을 직접 배워 선물포장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제과 포장은 너무 화려하기보다 심플한 것이 오히려 제품을 돋보이게 합니다. 포장할 때 제품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베이커리 전문 매니저답게 포장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가 엿보인다. 제품에 맞는 포장지와 리본을 직접 준비하고 계절별 특수절에 맞춰 새로운 포장 아이템을 구상해 준비하는 김주희 씨의 센스가 돋보인다.

1 구움과자 미니 포장 선물세트. 부담없는 선물을 찾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2 각종 쿠키, 파운드 케이크 등으로 구성된 고급 선물 세트. 중후한 톤의 박스에 고급스러운 리본을 묶어 마무리했다. 3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바구니 선물세트. 4 발렌타인용 하트 선물상자. 손수만든 상자에 갖가지 수제 초콜릿을 넣어 포장 판매한다.



고품격 포장 전문 베이커리 본누벨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본누벨(대표 서강현)은 매장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가득하다. 아늑한 실내를 돋보이게 하는 매장 인테리어와 깔끔하고 세련된 제품으로 특히 여성 단골고객이 많다.

제품을 직접 만드는 오너셰프 서강현 씨는 제품 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와 포장까지 직접 신경을 쓴다. 날개 포장, 크기별 선물세트, 특수절을 겨냥한 포장 등 미리 포장 컨셉을 정하고 그에 맞는 포장제품을 직접 주문한다. 매출이 가장 높은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에는 일본에서 포장상자를 주문할 정도로 대단한 열의를 보인다고.

포장 컨셉에 맞춰 가게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색깔 톤을 맞추고 새단장을 한다고. 본누벨만의 독특한 포장으로 고객들에게 제품과 점포의 느낌을 전달하려는 노력하기 위해 각 제품별 포장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 파손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제품에 독특한 개성이 돋보이는 포장이 앙상블을 이루어 본누벨을 더욱 빛나게 한다.

1 식욕을 자극하는 오렌지색 상자에 개별 포장한 파운드 케이크. 2 작은 수납상자라도 활용 가능한 원형 선물상자. 3 고급 수제 초콜릿에 걸맞게 마련한 다양한 초콜릿 패키지. 4 날개포장. 스티커에도 로고를 붙여 본누벨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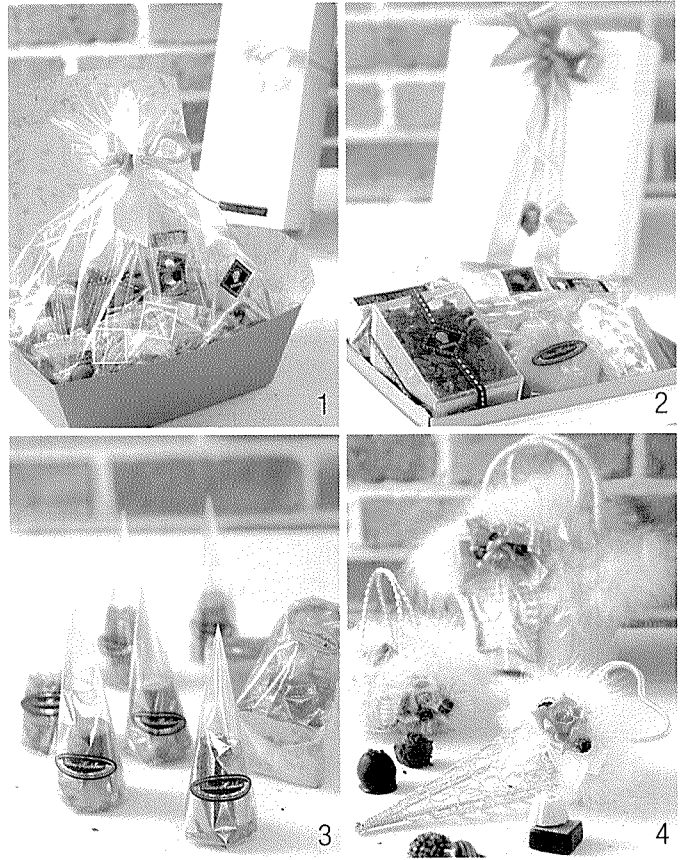


섬세한 포장이 돋보이는 곳 가또마들렌 송실대점

각 매장마다 다른 인테리어와 컨셉으로 운영하는 가또마들렌(대표 이호정)은 2004년 4월 송실대점을 오픈했다. 가또마들렌 송실대점에 들어서면 15년 동안의 긴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제과인생을 시작한 이호정 사장의 야무진 성격이 매장 구석구석에서 느껴진다.

오랫동안 슈거크래프트 공부를 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 사장은 설탕으로 빚어내는 섬세한 슈거크래프트 작업처럼 포장에도 많은 정열을 쏟는다. 자신이 직접 시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재료를 구입하고 정성스럽게 제품 하나하나 그의 손을 거쳐 포장을 완성한다. 이렇게 탄생한 포장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가또마들렌 송실대점은 깔끔한 날개 포장이 잘 되어 있어 고객이 포장을 원하는 상자와 제품을 선택하면 거기에 알맞은 포장을 해준다. 제품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 쓴 포장에서 과자를 사랑하는 오너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1 종이 상자에 포장한 구움과자 선물세트, 파운드 케이크 선물세트. 2 원하는 상자와 제품을 고르면 거기에 알맞은 포장을 해준다. 3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구움과자 날개 포장. 코르네 모양으로 포장한 구움과자와 파운드 케이크. 4 발렌타이데이를 맞아 직접 만든 포장. 하트모양, 별모양, 우산모양 철제 바구니에 포장한 초콜릿을 넣어 판매한다.



심플하고 세련된 감각으로 승부

아루 Aroo

일본어로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아루' (대표 김원선)에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케이크와 쿠키들이 가득해 아루 매장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유혹한다. 아루에는 열 가지 정도의 포장 패키지가 선보인다. 모두 단색의 심플한 상자에 세련된 아루의 영문 로고가 새겨져 있고 각각 끈이나 아루 스티커로 포인트를 주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상자를 한층 멋스럽게 꾸몄다. 색과 모양이 다른 20가지도 넘는 쿠키는 투명용기 또는 아루 종이팩에 담아 리본으로 마무리해 골라먹는 재미를 더했다.

아루 포장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루의 김원선 사장. 포장에 있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에 철마다 방문해 새로운 제품을 맛보고 포장 패키지를 구매한다. 구매한 일본 제품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루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여러 종류의 패키지를 연구하는 데 쓰인다.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옛말처럼 포장에 정성을 들이고 투자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쿠키 4종 세트, 초콜릿색 상자와 와인그레이색 리본이 고급스럽다. 2 종합선물세트라 볼릴만한 대형 패키지. 3 아루의 대표적인 포장 패키지. 아루의 로고가 귀엽게 새겨진 흰 상자에 초콜릿색 리본 테이프를 색다르게 묶어 특별한 분위기를 냈다. 4 아루 선물 세트의 모든 것. 카스텔라와 파운드 케이크, 쿠키 6종이 모두 들어가 있다.